

지금 전 세계의 디자이너가 주목하는 축제 두바이 디자인 위크

중동 지역 디자인은 아직 우리에게 낯설다. 하지만 자본이 뒷받침된 이곳 출신의 많은 디자이너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교육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와 현지 디자인 수준을 높이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여세를 몰아 베이루트와 두바이가 예술과 디자인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5년에 개최한 두바이 디자인 위크Dubai Design Week가 유럽 디자인계 인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매년 11월 중 두바이 디자인 디스트릭트에서 6일간 열리는 두바이 디자인 위크는 중동에서 열리는 4대 디자인 위크(요르단 암만, 모로코 카사블랑카, 레바논 베이루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중 가장 큰 규모와 국제적인 참여율을 자랑한다.

2018년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열린 두바이 디자인 위크는 130여 개의 디자인 전문 회사가 참여하고 250여 가지의 이벤트가 열리며 전년보다 15% 증가한 7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여기에 전 세계 디자인 학도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글로벌 그라운드쇼Global Grad Show와 트레이드 페어인 다운타운 디자인Downtown Design이 함께 열려 다채로운 볼거리와 활발한 교류를 자랑하며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거리 입구부터 곳곳에 설치한 특별 조형물로 관람객을 압도한 두바이 디자인 위크의 하이라이트를 소개한다.

글 양윤정 | 사진 두바이 디자인 위크 사무국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 다이빙을 하는 아라비아반도의 전통을 소개하고자 만든 작품 '동해안의 소리[The Sound of the East Coast]'. 조업 활동을 할 때 사용한 바다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음파에 맞춰 실리콘 소재의 반원 작품들이 움직인다.

빛을 읽는 건축
아나키텍트의 파빌리온

영국과 두바이에서 활동하는 건축디자인 스튜디오 아나키텍트Anarchitect가 설계한 파빌리온 ‘빛의 생물학적 주기Circadian Light Synthesis’는 디스트릭트 D3입구에 설치되어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 인기였다. 두바이의 기후와 태양의 변화에 집중해 디자인한 이 설치물은 햇빛과 기온이 인간의 생체리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해보고자 만들었다. 붉은 점토로 지은 두 개의 건물 중 하나는 태양의 경로와 정렬이 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하나는 밀폐된 공간에 인공 광원을 설치했다. 한 번의 방문으로 는 단박에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이지만 공간을 둘러보며 기둥 사이로 바라보이는 바깥 풍경과 새어 들어오는 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작고 사소한 것이 내뿜는 강렬한 힘
리즈 웨스트의 어글로

두바이 디자인 워크에서 가장 컬러풀한 설치물로 기억되는 ‘어글로 Aglow’는 영국 예술가 리즈 웨스트Liz West의 작품이다. 전 세계의 여성 인재를 후원하는 패션 브랜드 네모제나Nemozena와 협업해 탄생한 것으로 형광 네온 컬러의 아크릴 용기 설치물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아름다움을 선물한다. 아크릴을 커팅한 가장자리에서 빛나는 강렬한 색, 그 안에 맑은 액체를 담아 주변의 사물을 비춘 풍경은 일상에서 흔히 보던 평범한 사물을 특별한 인상으로 만들었다. 사소하고 작은 것을 모아 만든 화려하고도 강렬한 작품이다.



아나키텍트의 설치물 ‘빛의 생물학적 주기’.



리즈 웨스트의 작품 ‘어글로’.



늘 방문객들로 붐빈 글로벌 그레드 쇼 전경.



2018년 최고 작품으로 뽑힌 미리암 드 브루인의 20%.

세계가 주목할 예비 디자이너들의 무대
글로벌 그레드 쇼

전 세계 45개국 100개 디자인대학의 제품디자인과 졸업 예정자 150명이 참여한 전시다. ‘변화를 가속화하고 삶을 개선하자accelerate change and improve lives’는 테마로 열린 글로벌 그레드 쇼는 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50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2018년에는 특히 칠레, 헝가리, 요르단, 파키스탄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의 카이스트, 삼성디자인교육원SADI,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큐레이팅을 담당한 브렌단 맥게트릭Brendan McGetrick은 오늘날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당장 팔릴 수 있는 디자인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질문한다. 대량생산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품은 디자인을 선정한 글로벌 그레드 쇼에서는 암세포를 식별하는 펜부터 장애인인의 움직임을 도와주는 보조 장치물, 기후변화

에 대처할 수 있는 디자인적 방법론까지 미래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었다. 그중 2018년의 최고 작품으로 뽑힌 디자인은 네덜란드 아이트호벤 디자인 아카데미Design Academy Eindhoven 출신의 미리암 드 브루인Mirjam de Bruijn의 ‘20%’다. 생활에서 사용하는 세척제의 내용물 중 80%는 실제 ‘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외한 20%의 농축액만 담은 세척제 용기를 디자인했다. 구입 후 소비자가 물을 직접 넣어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간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80%에 해당하는 무게가 감소한 만큼 운송 과정에 많은 절감을 가져오고 차량의 배기가스도 줄일 수 있어 환경친화적이라는 것이 포인트다. 이러한 다국적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이 글로벌 그레드 쇼의 묘미다.

무역하는 예술품

다운타운 디자인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운타운 디자인은 175개 업체가 참여해 2017년보다 규모가 20% 커졌다. 그중 중동 지역의 젊은 디자이너 그룹으로만 구성해 처음 선보인 ‘다운타운 에디션’은 그들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보여주며 해외 매체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만 활동하는 나카시 갤러리Nakkash Gallery는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아트퍼니처를 선보이며 모던한 디자인과 섬세한 마감으로 아랍에미리트의 장인 정신을 자랑했고, 사막의 모래를 이용해 표면을 마감한 더 파운드리The Foundry의 라멜Ramel 제품은 현지 감성을 한껏 전달했다. 크리스털 명품 브랜드 프레스시오사Preciosa가 선보인 인터랙티브 설치물 ‘브레스 오브 라이트Breath of Light’는 관람객들이 직접 입으로 바람을 불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빛과 소리를 만들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프랑스 디자이너 마크 앙주Marc Ange의 예술 작품 같은 야외 선베드 ‘르 레퓨지Le Refuge’는 바다가 보이는 전시장의 테라스에 설치해 그림 같은 풍경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동 지역의 젊은 디자이너 그룹으로만 구성해 선보인 ‘다운타운 에디션’.



바닷가를 배경으로 야외에 설치된 마크 앙주의 선베드 ‘르 레퓨지.’

사막의 모래를 이용해 표면을 마감한 더 파운드리 라멜 제품.



INTERVIEW

라완 카시쿠시 Rawan Kashkoush

두바이 디자인 위크 프로그램 연출가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문화가 널리 퍼진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고급스러운 취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5성급 글로벌 체인 호텔 인테리어로 이어졌다.”

Q 국제 디자인 행사 개최지로서 두바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가?

A 지리적 위치와 안정적인 경제, ‘문화의 용광로’라는 매력이 있다.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업계 종사자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산업과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젊고 빠르게 변하는 이곳에 몰려들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이 도시는 아이디어가 넘쳐흐르는 흥미진진한 곳이다.

Q 중동 지역 디자이너들의 참여가 특히 많이 증가했다. 어떤 방법으로 지역 디자인을 응원하고 있나?

A 두바이 디자인 위크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큰 행사인 만큼 행사 기간 외 열리는 수많은 이벤트를 지원한다. 지역 디자인 커뮤니티를 성장시키고 활성화하는 플랫폼으로서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행사에서 열리는 모든 콘퍼런스와 워크숍, 클래스 등은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4회 때 시작한 다운타운 에디션은 중동의 디자인을 알리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외신기자들의 활발한 보도로 현재 많은 현지 디자이너가 해외에 알려지고 있다.

Q 글로벌 그랜드 쇼는 두바이 디자인 위크에서 매년 주목받는 행사 중 하나다. 전시 후 실제 제품 개발로 진행된 적이 있나?

A 최고 작품으로 뽑힌 미리암 드 브루인의 ‘20%’ 제품에 앞으로의 연구 지원을 위해 생산 자금 1만 달러(약 1100만 원)를 상금으로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개발되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리는 건 당연하니 앞으로 이 젊은 작가들을 주목해주기 바란다.

Q 2019년에는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 열릴 예정인가?

A 매년 행사에 대한 회고 및 진단과 분석을 내린다.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어떤 방법을 도입할지 연구한다. 2017년 행사의 목표는 지역 디자이너들에게 국제 무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고, 2019년에는 인테리어 디자인과 건축이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 디자이너가 감각적인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멋진 공간에 들어섰을 때 드는 감정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디자이너를 위한 비즈니스와 수익 창출 방법을 좀 더 깊이 연구해 알려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Q ‘두바이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A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널리 퍼진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고급스러운 취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5성급 글로벌 체인 호텔 인테리어로 이어졌다. 이슬람 문화가 현재의 건축, 장식, 금속, 직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기후 또한 디자인에 활용되는 재료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모래, 야자수 잎, 낙타 가죽, 산호를 이용한 제품들도 이곳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동아시아부터 북아메리카에 이르는 여러 나라의 브랜드를 수용해 다양한 스타일을 접할 수 있다. 田